

12. 소련 측에 의해 되돌려 받은 승객들의 소지품목 중 어떤 것이라도 승객 구출에 대한 의문점에 관련된 것이 있는가? 그 신발들은 어떠한가?

1983년 9월 26일 월요일, 일곱 명의 일본/미국 관리 대표단이 일본 경비정 *쯔가루(Tsugaru)* 를 타고 도착하여 여섯 명의 소련 대표단과 사할린 네벨스크 (Nevelsk) 항에서 만났다. 사할린과 쿠릴 (Kuril) 섬 국경 경비대 지휘관인 KGB 소장 A.I. 로마넨코 (Romanenko) 가 소련측 대표단 수반이었다.* 로마넨코는 일본/미국 대표단에게 다른 것들과 함께 신발류를 건네 주었는데, 일본인들이 회수한 신발류와 함께 통틀어 213명의 남성, 여성, 아이들용 구두, 샌달, 운동화 등이었다. 소련측은 이것이 그들이 회수한 전부라며, 사할린과 모네론 섬 바다에 떠 있거나 해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 말했다.

KAL 007기 승객 유가족들은 후에 이 신발들이 실제로 그들이 사랑했던 가족들이 그 운명적인 밤 비행기에 승선했을 때 신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. 소냐 먼더 (Sonia Munder) 는 즉시 그녀의 아이들 - 크리스틴 14살, 리지 17살 - 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복잡하게 매어 놓은 운동화를 알아보았다. (소냐는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그녀의 아이들이 비행기에 승선했을 때 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). 또 다른 어머니는, "저는 그냥 알아볼 수 있었어요. 아시겠지요, 모르는 사람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온갖 표시들이 있어요. 그걸 보고 알아 본 거예요. 우리 딸은 그 신발 신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." 그런데 또 다른 어머니(아마 정말 이를 알아보는 건 어머니 뿐일 것이다!), 낸 올드햄 (Nan Oldham) 은 213 켈레의 신발 중 55 켈레가 실린 *Life* 잡지에 실린 한 사진에서 그녀의 아들 존의 운동화를 알아보았다 - 분명히, 일본 치토즈 공군기지에서 사건이 일어난 그 첫날들을 보여주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. "우리는 잡지에서 아들 운동화 사진을 봤어요," 라며 "우리는 KAL기 사건을 모조리 추적하고 있었거든요. 며칠 후에 소포 하나가 도착했는데 아들 신발이 안에 들어 있더군요: 11 사이즈의 크림색 페인트가 묻은 운동화였죠." 존 올드햄은 KAL 007기의 31번 좌석에 앉아 있었고 크림색 페인트가 군데 군데 묻어있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. 그는 워싱턴 교외에 있는 집을 페인트 칠 하다가 바로 온 것이었다.

Life 잡지에 있는 신발 사진을 조사하면서, 켈레별로 묶어 그 켈레들을 세어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보면, 회수된 신발수는 KAL 007기에 탑승했던 269명 중에 198명 분으로 나타난다- 전체 중 거의 74%에 달하는 수치다.

소련측은 비행기 승객들 중 74%에 달하는 신발을 회수했지만 시신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. 이는 "시신이 어디에 있는가?" 라는 질문에 많은 무게를 더한다. 신발들이 시신에 신겨 있었으나 소련측 (또는 일본측) 에 의해 회수되었던지 아니면 신고 있던 승객들이 신발을 벗은 다음 소련측 (또는 일본측) 에 의해 회수되었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. 왜 신발들이 벗겨져 있나? 착륙 준비 차원에서 벗은 것인가 아니면 비행 도중 그들이 그냥 벗어 놓은 것인가? 어느 경우든, 큰 문제 하나는 남게된다. 이 많은 신발들은

발견되는데 신발을 신고 있는 시신은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게 정말로 가능한가? 그리고 수상 착륙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신발을 벗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한다면- 그럴 시간이 없었거나 비행기가 폭발 직전이었고 너무 불안정한 상태여서 그럴 수가 없었던지 간에 -,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온다. - 만약 시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커다란 계들이 시신을 먹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, 전문가 의견과는 반대로 뼈는 바다 생물들에게 먹힌 거라면, 213개의 신발류 중 하나도 다리, 발가락, 아니면 발가락 뼈와 함께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가?

* 해설 - (공화당 의원 보고서에 따르면) 로마넨코 장군은 KAL 007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 나쁜 종말을 맞게 된다. 공화당 의원 연구 보고서는 그가 아마도 쿨라그에 보내졌을 거라고 보고한다. 이스라엘에 있는 소비에트 연방 교도소/정신병자 감옥/강제노동 수용소 연구 센터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- 공화당 연구 보고서 전에 그와 관계없는 다른 정보원-, 로마넨코 장군 이름이 KGB 컴퓨터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. (이름이 한번 등록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임무로 돌려졌거나, 죽었거나, 은퇴한 것 등으로 표시되지 지워지지는 않는다. 이는 로마넨코 장군이 존재한 적이 없는 인물인 것처럼 된 것이다.) 그리고 마지막으로, 미국 유가족 협회장인 한스 에프라임슨-엠프트(Hans Ephraimson-Abt) 는 그가 동독 주재 소련 대사관에 있었을 때, 로마넨코 장군에 대하여 그가 물은 질문에 대사관 관리들은 그가 자살했다고 알려주었다. 물론, 어떤 시간대에서 었든지 간에 이는 사실이었을 수 있다.